

“유세하듯 전국 순회” 김태년, 윤석열 견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총장〉

윤석열 ‘작심발언’에 대선후보 언급
김태년, 월성1호기 등 압수수색 비판
“입법부 권한 행사…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복합K-뉴딜위 국민복합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이 최근 ‘작심 발언’을 한 뒤 야권 대선후보로 재차 언급되자 민주당이 견제하는 모양새다. 앞서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1.9%,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한 17.2%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21.5%로 공동 1위로 나타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압수 수색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대표인 입법부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진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전날(9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하자 김 원내대표가 반박에 나선 셈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은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전날(9일) SNS에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는 글을 올려 “수사에 따라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도 10일 윤 총장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대선 후보 지지율 3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편향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추미에 법무부 장관 자녀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월성 1호기와 관련한 수사에 이어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검찰은 마치 국민의힘의 주문에 맞게 정부와 국정과제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국민의힘은 그런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엄호사격을 하는 듯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식육가공품 시장 연 평균 8.9% 급성장

농식품부-aT, 가공식품 시장 현황
HMR·1인가구·캠핑족 증가 영향
양념육류·소시지류 등 생산 증가
대체품 증가에 햄류·베이컨류 감소

가정간편식(HMR)과 1인가구, 캠핑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가 발간한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식육가공품’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식육가공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조 6000억원으로 2015년(4조3000억원) 이후 연평균 8.9% 수준으로 성장했다.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말한다.

식육가공품 품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인 가구와 캠핑 인구 증가, 가정간편식 제품 증가로 양념육류, 소시지

류, 건조저장육류, 식육함유가공품 생산액은 증가한 반면, 대체제품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햄류, 식육추출가공품, 베이컨류의 생산은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세계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4237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2.4% 성장했다. 국가별 규모는 미국이 1066억 달러(2019년)로 전체 시장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517억 달러(12.2%), 독일 286억 달러(6.7%) 순이며, 우리나라는 39억 달러로 19위다. 품목별로는 햄·소시지 시장이 1543억 달러(36.5%), 냉장식육가공품(버거, 미트볼 등) 689억 달러(16.3%), 조리식품 618억 달러(14.6%) 순으로 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 식육가공품 시장은 저염·저당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가 활발하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로 클린 라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 소금·후추 등 전통적 양념에서 벗어나 매콤한 육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 손으로 먹기 쉬운

핑거 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육가공품 수출액은 2046만 달러, 수입액은 5532만 달러 수준이다. 국가별로 2015년 기준 최대 수출국이었던 대 중국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 1월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필리핀으로 햄, 소시지, 삼계탕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대 필리핀 수출액은 2016년 47만 달러에서 2019년 167만 8000달러로 급증했다.

수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소시지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햄(미국·덴마크)과 육포(호주) 수입은 국내 가정간편식 식육가공 제품 다양화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 식육가공품 중 햄류(28.8%), 소시지류(28.2%), 베이컨류(10.2%) 순으로 구입이 많았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햄, 소시지 구입이 많고, 미혼 독립 가구는 햄류와 베이컨류 구입이 많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독자설계·건조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 진수

방사청-해군, 중형급 잠수함 2번함
봉오동 전투 ‘안무장군’ 이름 붙여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국내 독자설계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잠수함에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었던 안무(安武) 장군의 이름이 붙여졌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해군은 10일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III, 3000톤급)’ 진수식을 거제 대우조선해양 육포조선소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장호함에 이은 장보고-III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안무함은 지난 2012년 계약되어 2016년 착공식과 2018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거행하게 됐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주빈으로 부석중 해군참모총장,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이성



10일 경남 거제 육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기다리는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 /해군

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진수식에는 안무 장군의 손녀 안경원 여사(90)를 대신해 여사의 아들 강용구 씨(67)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안 여사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진할아버지인 안무 장군이 독립투사라는 사실을 말해주어 알고 있었고,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지방군) 출신으로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 참가해 공헌을 했지만,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그 해 순국했다.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軍 특수차량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국방부-과기정통부, 실증연구 나서

국방부와 과기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즈마는 고체·액체·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로 불리는 높은 온도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이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개발 중인 오염물질 연소플라즈마 버너를 군 특수차량 하단부 배기관에 장착해 추진돼 왔다.

양 부처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저감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편인 군 특수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되면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의 실증연구는 군용 특수차량에 플라즈마 버너를 장착해, 저속·단시간으로 주행하더라도 고온의 안정적인 화염을 유지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공군 4개 부대의 공군 군용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문형철 기자

특고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고용부, 14개 직종 3350명 설문
소득 높을수록 가입 선호도 낮아

특고고용직(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꼴로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고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 선호도는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높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는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학습지교사(92.4%)가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월 400만원 이상(80.6%)은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특고·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68.7%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